

美 칩스법 ‘태양광’ 포함… 국내기업,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

美 재무부 칩스법 적용 규칙 개정
한화솔루션 등 수천억대 혜택 기대
“IRA 다르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태양광 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며 국내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칩스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종 규칙에 태양광 모듈용 웨이퍼 생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웨이퍼는 얇은 판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모듈에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한 웨이퍼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비슷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발효된다.

칩스법은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시설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투자 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규정으로 반도체 제조 산업을 미국으로 돌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을 견제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지난 8월부터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해 적용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에도 상계관세를 매기며 중국산 우회수입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미·중 갈등이 태양광까지 확대

되며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제품들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으면 공제 수준이 25%까지 확대돼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 중인 한화솔루션은 정책 변화에 힘 입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공장의 상당 부분이 잉곳 및 웨이퍼 생산에 투입되기에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터스빌 공장은 연간 3.3GW(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모듈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동일한 규모

의 잉곳·웨이퍼·셀 생산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또한 칩스법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솔루션은 30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열고 “칩스법과 관련해 태양광 웨이퍼가 반도체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미국 태양광 웨이퍼에 이미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솔루션은 현재도 IRA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이와 다르게 적용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OCI홀딩스도 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선방… 매출 18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수익성 견조
인도 등 철강시장 투자 계획 밝혀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경기침체장기화에 따른 수요침체기에도 미래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투자에 속도를 높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 3210억원, 영업이익 7430억원, 순이익 497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1%, 1.2% 소폭 감소한 유사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37.9% 감소했다.

철강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영업이익 43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00억원의 수익이 개선되었으나, 중국 철강

수요 부진 지속 및 가격하락 영향으로 중국 법인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인프라부문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발전 사업 이익이 확대되었고 포스코에너지의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손익만회 활동 등으로 이익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44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포스코퓨처엠이 하이니켈 양극재 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양극재 재고 평가손실 및 음극재 판매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성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철강부문에서는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그룹과 합작해 인도에 연산 5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

젝트를 포함한 철강 상공정 중심의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인도 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이미 운영 중인 하공정과 시너지를 모색하고 무역장벽 강화 기조 속 현지 공급망을 강화해 고성장하는 인도의 철강 시장을 선점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칠레 신규 리튬광산 입찰 참여를 진행중이며 탄자니아 흑연 프로젝트 지분참여를 통해 우량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구조개편 대상인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을 기존 120개에서 125개로 늘렸다”며 “이 중 2024년 3분기까지 총 21개 구조조정을 완료해 6254억원에 달하는 현금유입 효과를 거두는 등 자산 효율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화학,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본격 진출

방열 접착제 180개 이상 특허 보유
“모빌리티 소재 사업 적극 육성할 것”

LG화학이 자동차용 접착제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북미 전기차 업체향으로 방열 접착제 공급을 시작으로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을 확대하고 수천억 단위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열 접착제는 배터리 셀을 모듈·팩에 접합할 때 사용되며 높은 열전도성, 전기 절연성을 갖춘 제품으로 열관리와 성능 유지에 필수적이다.

LG화학은 방열 접착제 18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 기술장벽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방열 성능에 더하여 고객의 비용 절감과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LG화학 자동차 차체용 접착제

/LG화학

을 개발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18년 미국의 접착제 전문기업 유니실(Uniseal)을 인수해 자동차 접착제 사업을 본격화했다. 유니실은 북미 내 자동차 차체용 접착제 1위 기업으로 최근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없고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신

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LG화학은 파워트레인용으로 배터리 방열 접착제 외에도 모터, 인버터·컨버터용에 적용되는 폴리이미드 바니쉬, 실버 나노페이스트 등 다양한 접착 소재를 국내외 업체와 긴밀히 개발 중이며 카메라 센서, 헤드램프,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타 전장 부품 분야로 사업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은 전동화·자율주행화에 따른 전장 부품 수요 확대 및 차체 경량화·친환경 소재의 수요 증가로 2024년 9조원에서 2030년 16조원 규모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LG화학 신화학 부회장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전자 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합성, 물질 설계 및 제조 공정 등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영역인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적극 육성해 시장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LG이노텍,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 개발

13.8kG 성능… 세계 최고수준 자력

LG이노텍이 중(重) 희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갖춘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magnet)’ 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같은 고가의 중 희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LG이노텍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중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원계 합금 물질을 개발했다.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희토류를 쓰지 않고도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13.8kG(킬로가우스·자석세기단위)의 성능을 내며, 최대 180℃ 고온 환경에서 내구성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글로벌 고객사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장착되던 기존 마그넷을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으로 대체하면, 전기차 1대당 45kg의 환경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 또 중희토류 1



친환경 마그넷 제품.

/LG이노텍

kg를 채굴하는 데 생기는 이산화탄소(CO₂) 0.5t과 산성폐수 및 방사능물질 450kg도 줄이게 된다.

LG이노텍은 이 제품이 공급망과 원재료 비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LG이노텍은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등 자사 제품에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및 차량부품 기업, 스마트폰 제조 기업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적극 펼쳐, 가전·로봇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크립토큰’ 美 NIST 보안인증 (자체 개발 암호 모듈)

TV·모니터 등 주요제품 보안 활용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암호 모듈 ‘크립토큰’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로부터 FIPS 140-3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크립토큰은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저장될 때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해 사용되며,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다. FIPS 140-3 인증은 미국 NIST가 발행하고 전 세계 10개국에서 상호인정되는 대표적인 암호 모듈 국제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크립토큰을 자사 운영체제인 타이젠 운영체제(O

S)에 적용해 TV·모니터·사이니지 등 주요 제품들의 보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타이젠 OS에 크립토큰을 탑재하면 기기에 로그인된 삼성 계정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인증 정보도 암호화가 가능해 외부 해킹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용재 부사장은 “타이젠 OS 기반 제품들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신뢰성을 지속 확보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